

조현병과 정신분열병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인식의 변화

I. 서론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2011년, 대한의사협회는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개정하였다. 병명을 변경한 지 약 9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조기 진단과 지속적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병명 개정을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식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정신분열병 및 조현병 관련 뉴스 기사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여론을 틀 짓는 언론의 기능을 프레임(Frame)이라 하며, 뉴스 매체가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여론도 예외는 아니다. 보통 공중은 언론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사건 및 정책, 연구 결과를 접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스 프레임을 사회적 인식으로 보고, 주제 및 키워드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황애리와 나은영(2018)^[1]이 제시한 뉴스 프레임의 조작적 정의를 수정, 활용하였다.

III.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 분석을 위해 네이버 뉴스 기사를 활용하였다. 검색어는 ‘정신분열병’과 그 동의어인 ‘정신분열증’, ‘조현병’과 그 동의어인 ‘조현증’으로 하였다. 정신분열병과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석은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거시적 분석으로는 LDA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뉴스 기사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미시적 분석으로는 TF-IDF, 동시출현 단어, 감성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문헌 간의 관계와 맥락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셋은 병명 개정 전후, 병명 간의 사회적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병명 개정 전 정신분열병 뉴스 기사(2000.01.01~2010.12.31.), 병명 개정 후 정신분열병 뉴스 기사(2011.01.01~2019.05.31.), 병명 개정 후 조현병 뉴스 기사(2011.01.01~2019.05.31.)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1. 병명 개정 전과 후의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RQ2. 병명 개정 후 정신분열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V. 결론

- RQ1. 전체적으로 병명 개정 이후 정신분열병과 조현병에 갈등 프레임과 범죄 관련 키워드의 비중은 급증한 반면, 의학적 프레임의 기사 비중은 급감하였다. 또, 기자의 부정적인 주관어 기사에 반영되는 경향이 증가했다. 이는 대중이 정확한 의학 지식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정신분열병/조현병 환자는 위험하다는 편견만 더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 RQ2. 부정적 기사의 비율, 기사 내 부정적 키워드의 중요도 및 다양성, 기사에 드러난 감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병명 개정 후 정신분열병보다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갈등, 의학적 프레임의 증감뿐 아니라 병명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해당 질병을 정신분열병으로 일컫는 문화예술 보도의 관습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신분열병에서 조현병으로의 병명 개정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인식과 동일시되는 언론 보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편견 해소에 기여하는 의학적 프레임은 감소하고, 불안과 편견을 조장하는 갈등 프레임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신분열병과 달리 병명 자체의 부정적 어감은 없는 조현병이지만, 해당 질병이 계속해서 범죄 등의 부정적인 정보와 연관되어 보도된다면 사회적 인식은 병명과 관계없이 절대로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보도 방향의 정립을 위한 조직적,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황애리, 나은영. 2018. 한국 언론의 정신건강 보도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 뉴스 프레임과 기사 논조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4), 290-322.